광주·전남 전국체전 배드민턴 메달 레이스

전대사대부고 노진성-안윤성
조송현-광주체고 김예리 '동'
화순군청 유채란-정나은
조선대 김다솜-안혜원 3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The 102nd National Sports Festival

광주와 전남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배드민턴과 하키에서 동메달 5개를 거둬들였다.

광주는 배드민턴 고등부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대학부 여자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전남은 배드민턴 일반부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하키도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전대사대부고 노진성-안윤성(3년)은 12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남자고등부 복식 4강에서 충남 윤보-진용조에 0-2(13-21 19-21)로 지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노진성-안윤성조는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금빛 호흡을 맞췄으나 체전에서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노진성-안윤성은 1회전에서 제주 오승호-이민욱에 2-0, 2회전에서 전북 진성익-천상환을 2-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었다.

고등부 혼합복식에 나선 광주체고 김예리와 전대사대부고 조송현(이상 2년)도 준결승에서 서울 최평강-조유나에 0-2(22-24 15-21)로 석패, 3위를 기록했다.

김예리-조송현은 혼복 1회전에서 전북 고희주-김도윤을 2-1로, 2회전에서 울산 추찬-황다현을 2-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결승진출에 실패, 내년 전국체전을 기약했다.

대학부에서는 조선대 김다솜(4년)-안혜원(2년)이 여자복식 준결승에서 부산 조서영-지영빈에 1-2(14-21 21-17 13-21)로 지면서 결승티켓을 놓쳤다. 김다솜은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채희수와 호흡을 맞춰 여자대학부 복식 동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는 후배와 함께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남은 화순군청 유채란-정나은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채란-정나은은 이날 준결승에서 인천 신승찬-이소희를 만나 1-2(21-19 19-21 13-21)로 지면서 3위에 머물렀다. 유채란-정나은은 1회전에서 경남 강한울-홍희양을 2-0(21-7 21-8)으로, 2회전에서 서울 이지영-장연숙을 2-0(21-8 21-6)으로 각각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국가대표 신승찬-이소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배드민턴은 이날 복식 경기를 마치고 13일부터 단체전 메달레이스에 돌입한다.

여자하키 준결승에 진출했던 목포시청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동메달을 기록했다.

목포시청은 지난 11일 대구안심하키경기장에서 열린 하키 여자일반부 4강에서 경북체육회에 0-1로 석패, 3위를 기록했다.

목포시청은 1회전에서 '강호' 인천시체육회를 2-1로 꺾었고 8강에서 대구과학대를 5-0으로 제압, 4강에 진출했었다.

한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다음달 8일부터 경북 일원에서 개최되며 배드민턴과 하키는 국제대회 일정과 겹치면서 사전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최진화 기자

전대사대부고 노진성과 안윤성이 12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배드민턴 남고부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왼쪽). 조선대 안혜원-김다솜은 여자대학부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1,068일만의 선발 등판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1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KIA 선발투수 한승혁이 1회에 투구하고 있다. 한승혁은 2018년 10월 10일 광주 한화전 이후 1,068일만에 선발 등판, 3⅔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FC, K리그1 첫 4연승 아쉽게 무산

수원 삼성과 2-2 무승부
허율·김주공 후반 득점

광주FC 허율이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수원 삼성과 경기에서 후반 4분 동점골을 터트린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는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2-2로 비겼다.

광주는 구단 첫 K리그1 4연승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점 1점(승점 29·8승5무14패)을 보태는데 그쳤다.

광주는 전반 41분 수원 정상빈에 실점하며 0-1로 전반을 마쳤다.

광주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8분 만에 전세를 뒤집었다.

후반 4분 이으뜸의 프리킥을 2001년생 허율이 헤딩으로 돌려놓아 K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4분 뒤에는 2002년생 엄지성의 크로스를 김주공이 역시 헤딩으로 마무리해 역전시켰다.

하지만 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12분 이기제의 코너킥에 이은 민상기의 헤딩골에 광주는 2-2 동점을 허용했다.

김호영 광주FC 감독은 경기가 끝난뒤 "전반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지고자 했다. 전반전 선제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후반 시작하면서 이희균과 엄지성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 득점을 만들어냈다. 전체적인 경기내용은 만족하고, 선수들이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줬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팬들에게 4연승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를 갖는다.

한편, 제주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2-1로 이겼다.

전반 26분 주민규의 선제골로 앞서다 후반 19분 델브리지에게 헤딩 동점 골을 허용해 무승부로 끝나나 싶었으나 후반 49분 이창민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려 승부를 갈랐다. 이로써 제주는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승점을 34(7승 13무 7패)로 늘렸다. /최진화 기자

류현진, 시즌 최악투로 최다 타이 14승 물거품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14승에 도전했으나 시즌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야즈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2⅓이닝 만에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홈런 2개 포함 8개의 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했고 삼진은 4개 잡았다.

2⅓이닝은 류현진의 올 시즌 한 경기 최소 이닝이다. 지난해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류현진이 3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7실점은 류현진의 올 시즌 최다 실점 타이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77에서 4.11로 치솟았다.

그러나 토론토는 11-10으로 승리하며 와일드카드로 가을야구 무대에 오를 희망을 살렸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더블헤더 경기를 7이닝까지만 진행한다.

류현진은 3-7로 밀린 3회말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류현진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9패(13승)째를 떠안을 위기였지만, 7회초 조지 스프링어의 극적인 역전 홈런이 나온 덕분에 패전을 면했다.

류현진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14승과 아메리칸리그(AL) 다승 공동 1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토론토는 전날 로비 레이(4⅓이닝 3실점)를 이어 류현진까지 구단 최고 선발투수가 연달아 볼티모어에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도 타선의 뒷심으로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울버햄프턴 황희찬이 12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로드에서 열린 왓퍼드와 경기에서 후반 38분 골을 터트린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소' 황희찬 EPL 데뷔골 터졌다

울브스 2-0 완승에 쐐기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로드에서 끝난 왓퍼드와 2021-2022시즌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8분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2-0 승리에 쐐기를 박는 득점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프턴으로 임대 이적한 황희찬은 이날 데뷔전부터 마수걸이 득점을 신고해 브루노 라즈 감독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다.

유럽 정규리그 골 침묵도 1년 3개월 만에 깼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2019-2020시즌 11골을 넣었던 황희찬은 2020-202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뒤 주전 경쟁에서 밀려 좀처럼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시즌 독일 무대에서 황희찬은 컵대회에서만 3골을 넣었을 뿐, 정규리그에서는 무득점에 그쳤다. 그랬던 황희찬이 EPL에서는 일찍 득점포를 가동해 연착륙을 예감케 했다.

개막 3연패 중이던 울버햄프턴은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황희찬은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18분 프란시스코 트린캉과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29분 프란시스코 시에랄타의 자책골로 울버햄프턴이 1-0으로 앞서나간 가운데 상대 진영을 누비던 황희찬이 결국 쐐기골을 책임졌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슈팅해 골 맛을 봤다. /연합뉴스